
인터넷중독정도에 따른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윤태[†], 오정아^{††}, 이영주^{†††}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mmitting behavior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Yun Tae Jung[†], Jung A Oh^{††}, Young Joo Lee^{†††}

요약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가해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인 측정과 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 및 중독 위험집단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활동수준이 높고, 낮은 접근-철회성 기질과 기분기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양육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의 높은 과잉기대와 낮은 감독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 중독에 따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 및 가정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 중독, 청소년 기질,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가해행동

Abstract The significances of this study are that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empirical measure, and analysis of the relevance among the tempera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committing school violence and that, based on this, were drawn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depending on the demographical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s degree on the actions of committing school violence shows that the level of general activities is high in the group of young people of Internet addiction and addiction risk, their low access/withdrawal temperament and mood temperament affect significantly the actions of committing school violence, and in parenting behavior mother's high expectations and low supervision affect youth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violence. Thus,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were presented y dividing the role of government and schools, and homes.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youth temperament,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committing behavior school violence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05년 2518건에서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해마다 증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 박사수료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강사(교신저자)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12년 2월 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 2012년 2월 17일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36],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 40.5% 중 26.7%가 가해와 피해가 중복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2]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향후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 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집단 언어폭력, 악성 댓글 등 '사이버왕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교육 포기, 자살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37].

이와 같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제도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학계 역시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32],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인터넷 노출은 폭력과 범죄를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1],[14].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기질과도 연관이 높는데, 기존의 인성 모델들이 학습 이론 및 학습 과정 기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들과 잘 통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하고[31], 쌍생아 연구, 가계연구 장기종단 연구, 신경약물학, 신경해부학 및 신경행동학연구, 그리고 심리측정적 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유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기질모델(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제시하였다[1]. 즉, 지나치게 자극추구적인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환경적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에 인터넷 중독이 주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터넷 중독 요인 이외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양육행동 및 기질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밝혀진 요인이라 할지라도 연구결과가 상이하거나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가해 간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가해 간의 관련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 및 중독에 속한 청소년들을 한 집단으로 지정하여 비중독 집단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중독에는 이르지 않는 않았으나 몰입 정도의 상향여부에 따라서 중독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위험 및 중독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여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개념은 알코올이나 다른 충동조절장애처럼 실재하는 행동장애로[35], 약물중독과 유사한 의존, 금단, 내성증상이 인터넷 중독에도 나타난다[15].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개인변인과 가족 및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3][21][6][26][25][24]. 또한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7].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심리적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의도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정의되기도 하고[29],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개인이나 또래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 정의된다[33]. 청소년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금품갈취 등에 대하여 물리적, 심리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는 더욱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어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9].

기질은 외부적인 자극이나 기회, 기대나 요구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으로[34], 기질을 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역치, 반응강도, 기분, 주의전환성, 집중력과 지속성의 9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고, 또 다른 학자는 기질은 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표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

였다[30].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특성은 인터넷게임 중독과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10].

부모의 관리감독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애착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수용-거부적 태도는 자녀의 인터넷 사용욕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신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구와 사이버공간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욕구,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며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22].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충동통제력과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과 충동, 그리고 학교적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19][20]. 이러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성 같은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열등감 등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5][8][15]. 이러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성 같은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열등감 등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5][8][15].

3. 연구문제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인터넷 중독정도가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기질, 부모양육행동,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충남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201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2 측정도구

4.2.1 학교폭력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가해행동은 청소년의 폭력비행 행동의 개념을 개인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적응행동으로 정의하였다[2]. 본 척도는 1996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비행 유형분류를 수정 보완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7],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표현을 순화시켜 사용하였다. 학교폭력의 요인들은 Cronbach's α 값이 가해의 경우 물건갈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0.672~0.862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인터넷 게임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측정도구는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번안하여 고려대학교 인터넷 중독 온라인 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써 인터넷 게임 상황에 맞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였다[35]. Young의 인터넷중독 검사의 신뢰도는 정경아의 연구에서 1차 검사의 Cronbacha계수가 .929이고 2차 검사의 Cronbacha계수가 .907로 나타났다[23].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4.2.3 부모양육행동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일관성의 8요인 총 43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27].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부모양육행동의 요인들은 Cronbach's α 값이 부의 경우 비일관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0.71~0.82, 모의 경우 비일관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0.68~0.93으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4 청소년 기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척도는 뉴욕중단적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기질차원척도(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를 개정한 척도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는 10개 차원의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DOTS-R)의 10개 기질차원 중 재구성한 4개 기질차원 34문항만 사용하였다[3].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가된다. 청소년 기질 요인들은 Cronbach's α 값이 0.61~0.8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전시와 충남,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청소년기질이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학교폭력에 있어 학부모들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른 특성을 분석해 보고,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SPSS 14.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각의 영역에 하위변수를 선정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영역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 결과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중독집단은 남자가 54%, 여자가 45% 였으며, 학년별로는 중1학생이 49%, 중2학생이 45%, 중3학생이 6%로 나타났다. 반면, 중독위험 및 중독집단은 남자가 65%, 여자가 34% 였으며, 학년별로는 중1이 15%, 중2가 50%, 중3이 34%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보면, 비중독집단은 평균 2시간, 중독집단은 2.2시간으로 나타났고, 공부나 과

제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인터넷 사용시간의 경우에는 비중독집단은 1.8시간, 중독집단은 2시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임시간의 경우, 비중독집단은 2.2시간, 중독집단은 2.4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중독집단에서 인터넷사용시간이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참조).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성별 | | 학년별 | | |
|-------|---------------|---------------|---------------|---------------|--------------|
| | 남 | 여 | 중 1 | 중 2 | 중 3 |
| 비중독집단 | 109 (54.2) | 92 (45.8) | 98 (49.0) | 90 (45.0) | 12 (6.0) |
| 중독집단 | 117 (65.4) | 62 (34.6) | 28 (15.6) | 90 (50.0) | 62 (34.4) |
| 계 | 226 (59.5) | 154 (40.5) | 126 (33.2) | 180 (47.4) | 74 (19.5) |

<표 2> 집단 별 1일 인터넷 사용시간

| 구분 | 인터넷 사용시간 | 공부,과제제의 사용시간 | 인터넷 게임시간 |
|-------|----------|--------------|----------|
| 비중독집단 | 2시간 | 1.8시간 | 2.2시간 |
| 중독집단 | 2.2시간 | 2시간 | 2.4시간 |

5.2 중독집단별 청소년기질과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실태

인터넷 중독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학교폭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질은 7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행동은 각각 9가지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에 따른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3>, <표 4>, <표 5>, <표 6>과 같다.

5.2.1 중독집단별 청소년기질

중독집단별로 청소년기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에서 비중독집단이 중독집단보다 융통-경직성 기질이 낮고, 주의집중, 지속성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독집단별 청소년기질 차이검증

| 기질특성 | 비중독집단 | | 중독집단 | | t |
|---------|-------|-----|------|-----|---------|
| | M | SD | M | SD | |
| 일반적활동수준 | 2.31 | .55 | 2.46 | .40 | -3.14** |
| 접근-철회성 | 2.49 | .57 | 2.54 | .40 | -1.08 |
| 융통-경직성 | 2.19 | .55 | 2.29 | .39 | -2.03* |
| 기분 기질 | 2.08 | .62 | 2.19 | .52 | -1.70 |
| 주의집중성 | 2.37 | .57 | 2.22 | .45 | 2.74** |
| 지속성 | 2.55 | .66 | 2.38 | .51 | 2.93** |
| 기질차원 척도 | 2.32 | .31 | 2.33 | .20 | -.40 |

***p<.001, **p<.01, *p<.05

5.2.2 중독집단별 부모양육행동

중독집단별로 부모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중독집단별 모-양육행동 차이검증

| 구분 | 비중독 집단 | | 중독집단 | | t |
|-------|--------|-----|------|-----|----------|
| | M | SD | M | SD | |
| 애정 | 2.90 | .68 | 2.58 | .54 | 5.03*** |
| 합리적설명 | 2.57 | .70 | 2.47 | .54 | 1.56 |
| 학대 | 1.53 | .57 | 1.71 | .57 | -3.21** |
| 과잉간섭 | 2.06 | .62 | 2.18 | .48 | -2.19* |
| 과잉기대 | 2.01 | .67 | 2.14 | .55 | -1.95 |
| 감독 | 2.84 | .81 | 2.44 | .68 | 5.19*** |
| 방치 | 1.55 | .69 | 1.79 | .57 | -3.73*** |
| 비일관성 | 1.95 | .58 | 2.10 | .48 | -2.69** |
| 양육행동 | 2.17 | .32 | 2.18 | .26 | -.056 |

***p<.001, **p<.01, *p<.05

〈표 5〉 중독집단별 부-양육행동 차이검증

| 구분 | 비중독 집단 | | 중독집단 | | t |
|--------|--------|-----|------|-----|----------|
| | M | SD | M | SD | |
| 애정 | 2.77 | .77 | 2.56 | .57 | 3.07** |
| 합리적 설명 | 2.62 | .70 | 2.44 | .51 | 2.87** |
| 학대 | 1.50 | .54 | 1.74 | .58 | -4.07*** |
| 과잉간섭 | 1.88 | .57 | 2.06 | .47 | -3.47** |
| 과잉기대 | 1.96 | .67 | 2.11 | .57 | -2.29* |
| 감독 | 2.56 | .82 | 2.23 | .62 | 4.48*** |
| 방치 | 1.52 | .61 | 1.81 | .60 | -4.71*** |
| 비일관성 | 1.84 | .57 | 2.02 | .51 | -3.09** |
| 양육행동 | 2.08 | .32 | 2.12 | .29 | -1.18 |

***p<.001, **p<.01, *p<.05

부모양육행동에서도 비중독집단이 중독집단에 비해 부모의 애정, 감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2.3 중독집단별 학교폭력

중독집단별로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중독집단별 학교폭력가해 행동 차이검증

| | 비중독집단 | | 중독집단 | | t |
|------------|-------|-----|------|------|----------|
| | M | SD | M | SD | |
| 신체적 폭행 | 1.17 | .41 | 1.46 | .55 | -5.62*** |
| 물건갈취 | 1.18 | .40 | 1.46 | .51 | -6.07*** |
| 위협,협박 | 1.58 | .83 | 2.14 | 1.13 | -5.44*** |
| 욕설,폭언 | 1.48 | .81 | 1.52 | .61 | -.595 |
| 괴롭힘 및 강제행동 | 1.34 | .56 | 1.55 | .55 | -3.72*** |
| 집단따돌림 | 1.32 | .55 | 1.67 | .60 | -5.42*** |
| 학교폭력 | 1.34 | .44 | 1.60 | .48 | -5.55*** |

***p<.001, **p<.01, *p<.05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있어 비중독집단이 폭력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3 학교폭력가해요인과 청소년기질, 부모 양육행동간의 관계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청소년기질과 부모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기질, 부모양육행동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독집단별로 청소년기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부모양육행동과 학교폭력가해 행동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들 요인들이 학교폭력가해행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접근-철회, 융통-경직, 일반적 활동수준의 기질이 학교폭력가해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과잉기대, 방치, 비일관성과 아버지의 과잉간섭, 방치요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청소년기질, 부모양육행동과 학교폭력가해 행동간의 상관관계분석

| 구분 | | 신체적 폭행 | 물건 갈취 | 위협 협박 | 욕설, 폭언 | 괴롭힘/ 강제행동 | 집단 따돌림 | 학교 폭력 |
|-----|----------|--------|--------|--------|--------|-----------|--------|--------|
| 기질 | 일반적 활동수준 | .14** | .23** | .15** | .16** | .26** | .18** | .25** |
| | 접근-철회성 | -.10* | -.11* | -.11* | -.17** | -.20** | -.07 | -.18** |
| | 융통-경직성 | .18** | .21** | .08 | .09 | .19** | .22** | .20** |
| | 기분 | .01 | .01 | -.11* | -.09 | -.01 | -.12* | -.07 |
| | 주의 집중성 | .02 | .05 | .01 | .08 | .02 | .01 | .04 |
| | 지속성 | .10* | .08 | .03 | -.00 | .04 | .05 | .06 |
| 모행동 | 애정 | -.07 | -.18** | .03 | -.10* | -.14** | -.09 | -.11* |
| | 합리적 설명 | .04 | -.00 | .06 | -.04 | .02 | .02 | .02 |
| | 학대 | .13** | .15** | -.01 | .02 | .09 | .09 | .07 |
| | 과잉 간섭 | .09 | .07 | .13** | .13** | .06 | .17** | .14** |
| | 과잉 기대 | .05 | .07 | .06 | .11* | .06 | .19** | .12* |
| | 감독 | -.23** | -.17** | -.17** | -.17** | -.23** | -.15** | -.24** |
| | 방치 | .16** | .17** | -.01 | .04 | .10 | .16** | .11* |
| | 비일관성 | .11* | .15* | .11* | .03 | .04 | .24** | .13** |
| 부행동 | 애정 | -.10* | -.17* | .04 | -.18** | -.18** | -.06 | -.13** |
| | 합리적 설명 | .01 | -.01 | .00 | -.10* | -.07 | -.04 | -.06 |
| | 학대 | .16** | .10* | -.03 | .05 | .08 | .08 | .08 |
| | 과잉 간섭 | .08 | .03 | .09 | .10* | .10* | .17** | .13** |
| | 과잉 기대 | .07 | .06 | .02 | .08 | .06 | .15** | .09 |
| | 감독 | -.14** | -.15** | -.13* | -.18** | -.17** | -.17** | -.20** |
| | 방치 | .12* | .15** | -.00 | .06 | .11* | .14** | .11* |
| | 비일관성 | .04 | .06 | .07 | -.01 | .02 | .20** | .07 |

***p<.001, **p<.01, *p<.05

5.3.1 중독집단별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5.3.1.1 중독 위험 및 중독집단

1단계 기질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 부모 양육행동을 추가한 독립변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단계 회귀식은($R^2=.44$, $F=5.46$,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활동수준 ($\beta=.41$, $p<.001$), 융통-경직성 기질 ($\beta=.29$, $p<.01$)이 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분 기질 ($\beta=-.18$, $p<.05$)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추가 독립변인 중 모-과잉기대 ($\beta=.24$, $p<.01$)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감독 ($\beta=-.17$, $p<.01$)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2 비중독 집단

1단계 기질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 부모 양육행동을 추가한 독립변인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단계 회귀식은($R^2=.17$, $F=1.60$,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융통-경직성 기질 ($\beta=.14$, $p<.05$)과 접근-철회성 기질 ($\beta=-.17$, $p<.05$)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추가 독립변인 중 모-합리적설명 ($\beta=.16$, $p<.05$), 모-감독 ($\beta=-.13$, $p<.05$)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8〉 중독집단별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 구분 | 중독집단 | | | | 비중독집단 | | | | |
|-----|----------|------|--------|------|--------|------|-------|------|-------|
| | 1 | | 2 | | 1 | | 2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 상수 | .60 | | .02 | | 1.23 | | 1.64 | | |
| 기질 | 일반 활동 수준 | .41 | .33*** | .39 | .31*** | .00 | .00 | -.01 | -.01 |
| | 접근철회성 | -.15 | -.12 | -.22 | -.18* | -.17 | -.22* | -.18 | -.23* |
| | 용통-경직성 | .24 | .23** | .21 | .17* | .17 | .17* | .10 | .12 |
| | 기분 | -.18 | -.19* | -.16 | -.17* | .01 | .09 | .02 | .03 |
| | 주의집중성 | .07 | .03 | .04 | .04 | .07 | .07 | .05 | .07 |
| | 지속성 | .03 | .01 | .00 | .00 | -.02 | -.03 | -.00 | -.01 |
| 모행동 | 애정 | | | .06 | .07 | | | -.03 | -.05 |
| | 합리적설명 | | | .1 | .11 | | | .16 | .25* |
| | 학대 | | | .1 | .11 | | | -.07 | -.09 |
| | 과잉간섭 | | | .06 | .03 | | | .01 | .01 |
| | 과잉기대 | | | .27 | .27** | | | -.04 | -.07 |
| | 감독 | | | -.17 | -.23** | | | -.13 | -.24* |
| | 방치 | | | -.04 | -.05 | | | .04 | .07 |
| | 비일관성 | | | .14 | .17 | | | .05 | .07 |
| 부행동 | 애정 | | | -.05 | -.07 | | | -.07 | -.12 |
| | 합리적설명 | | | .07 | .09 | | | -.09 | -.14 |
| | 학대 | | | -.10 | -.18 | | | .06 | .07 |
| | 과잉간섭 | | | .05 | .08 | | | .03 | .04 |
| | 과잉기대 | | | -.05 | -.06 | | | -.00 | -.01 |
| | 감독 | | | -.02 | -.02 | | | .07 | .12 |
| | 방치 | | | .02 | .00 | | | -.00 | -.00 |
| | 비일관성 | | | .07 | .07 | | | -.01 | -.02 |
| 통계 | R2 | .26 | | .44 | | .07 | | .17 | |
| | 수정된 R2 | .23 | | .36 | | .04 | | .06 | |
| | F | 9.75 | | 5.46 | | 2.64 | | 1.60 | |

중속변수-학교폭력가해

***p<.001, **p<.01, *p<.05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개입활동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청소년기질은 경직성이

높고, 주의집중이 낮으며, 지속적인 지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에 있어 중독집단의 부모의 감독 및 애정은 낮은 반면, 부모 방임이나 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가해행동도 중독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독 및 중독 위험집단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활동수준이 높고, 낮은 접근-철회성 기질과 기분기질과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낮은 감독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중독 집단의 경우, 청소년의 낮은 접근-철회성 기질과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낮은 감독이 낮을수록 학

교육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현실세계를 무시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의 신체 및 학업 문제,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일상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양상하게 된다[18].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부문에서는 효율성 있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중독에 따른 학교폭력가해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처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지역사회중심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의 서비스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센터에 전문 인력 보강과 더불어 프로그램개발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문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학교에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의 개설 및 인력 보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학교 3,130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수는 199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4].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장기간 치료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독일의 ‘교육후견인 제도’와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도 책임성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과 같은 업무 이외에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기인하여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교사 층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들을 통해 폭력·비행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이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이므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학교폭력 해결의 한 방안으로써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청소년들의

인권에 기초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 중 독일, 노르웨이를 비롯한 영미권 국가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policies)’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가정의 역할이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징후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속적인 양육 및 교육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학업성취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지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26(1), 21-236.
- [2] 김재엽,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3] 김순재(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김세연(2011). 전국 초중고교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김세연 의원 2011년 국정감사.
- [5] 김예성(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혜원(2005).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회, 37(6), 19-66.
- [7] 김희수(2004).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8] 남영욱, 김정남(2010).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 123-141.
- [9] 박진규(2005).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2(4), 409-438.

- [10] 백지은(2009).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11-127.
- [11] 신동로, 백현기, 강정화(2008).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6(3), 93-107.
- [12] 신혜섭(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pp.123-149.
- [13]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4] 유병혁, 김수민, 백현기, 강정화(2009).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 연구*, 7(2), 71-81.
- [15] 윤혜미, 남영옥(2009).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존감, 우울, 충동성과 사회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25-143.
- [16]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7] 이문수, 홍성도, 정유숙(2007).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서의 기질성격 특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6(1), 65-70.
- [18] 이선희(1996). 청소년들의 PC통신 이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 이희정(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23, 143-171.
- [21]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2005).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8(2), 75.
- [22] 정재홍(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1), 113-128.
- [23] 정경아(2001). 게임 중독 청소년의 특성분석: 게임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조영미, 김동민, 손경수, 유지현(2009). 청소년 인식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 탐색: 개념도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1), 469-470.
- [25] 진춘애, 박철옥, 이은경.(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26] 한정선, 김세영.(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12(2), 161-188.
- [27]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28]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2005).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8(2), .75.
- [29] Astor, R. A. & Meyer, H. A.,(2001). The Conceptualization of Violence[prone School Subcontexts: Is the Sum of the Parts Greater than the Whole?. *Urban Education*, 36, 374-399.
- [30] Buss, A. H., & Plomo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Wiley.
- [31] Clonigner, C. R.(1987). A systeme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bie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32] Goldberg. I.(1996). Internet ass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2011년 8월 10일 검색.
- [33] Olweus, D.(1993). Bully/Victim problem among school children. In Pepler, C. and Ruvin, K.(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sdalle, NJ: Erlbaum.
- [34] Thomas, A.,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er/Mazel.
- [35]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gust.
- [36] 조선일보, 韓·日の 악독한 왕따, 세계에서 유례없다, 2011년 12월 24일.
- [37] 매일경제, 청소년 10명 중 2명 '사이버왕따' 경험·학교폭력 스마트폰으로 전염, 2011년 12월 15일.

정 윤 태



- 우송대학교 경영학사
- 우송대학교 경영학석사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박사수료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외래강사
- 관심분야 :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 E-mail : jyt408@naver.com

오 정 아



- 배재대학교 음악학사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 박사과정
- 백석문화대학교 외래강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 E-mail: musicka@hanmail.net

이 영 주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중앙대학교 (심리학 석사)
- 공주대학교(사회복지학 박사)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현재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장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가족 정책, 사회복지임상
- E-mail : ijoo65@hanmail.net